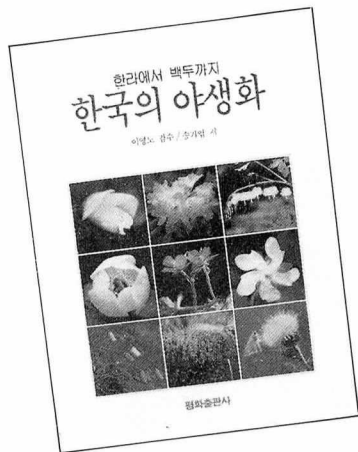


우리나라 야생화 담은 사진집

송기엽 지음 「한국의 야생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나라 산야에 핀 신비하고 아름다운 야생화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식물사진집이다. 작년 스포츠신문에서 주최한 야생화대탐사단에 전문사진작가로 참여, 1년동안 한장한장 살아있는 꽃들을 렌즈에 담았던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초대작가인 송기엽씨가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120여점을 엄선 수록했다.

백두산의 고산지에 자라는 구름국화와 평안도 백두산 주변지역에 단아한 모습으로 두메산골짜기의 개울물을 연상케 하는 두메투구꽃, 역시 백두산 주변지역에서만 자라는 노랑만병초, 양귀비처럼 곱고 피어 있는 두메양귀비 등 백두산의 맑고푸른 하늘과 구름이 걸린 산기슭을 배경으로 한 25종의 야생화가 색다른 감탄을 자아낸다.

또 설악산의 그늘진 바위틈에 자라는 병아

리난초, 에델바이스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진 솜다리, 옆으로 돌아서 수줍게 웃는 시골치녀를 연상케 하는 처녀치마, 아침이슬을 듬뿍 머금고 피어난 채꽃 등 16종과 휴전선 부근 대암산에 피어 있는 범꼬리, 중나리, 가는기린초, 물레나물 등 8종은 북녘땅을 대신해 작고 은밀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수림 밑에 은은한 자줏빛 자태를 드러낸 핑의 바람꽃이나 황홀감을 느끼게 하는 백작약과 강인한 생명력을 과시하듯 단아한 노루귀, 산악지대 무리지어 피어나는 열레지 등 오대산의 11종, 깊은산 그늘에 햇빛을 피해 피어나는 큰앵초나 은방울처럼 매달려 있는 은방울꽃 등 소백산의 9종, 그밖에 주왕산의 노랑물봉선, 풀풀, 할미꽃과 내장산의 단풍과 용담, 지리산의 광대나물, 쥐오줌풀, 월출산의 땅귀이개, 재비꽃 울릉도의 동백, 섬말나리, 그리고 홍도·진도·거문도·보길도·노화도·추자도에 야성미를 뽐내며 자연과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온갖 들꽃들이 선명한 색감으로 살아나 있다.

인공적으로 재배한 화려한 화초와 외국꽃에 익숙한 도시인들에게 자연 속에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의 소박하면서도 청아한 야생화는 공해와 환경파괴 문제로 사라져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또다른 느낌을 던진다. 식물분류학자인 이영노박사가 감수한 사진해설은 야생화에 대한 분포지, 개화기와 결실기, 용도 및 특징을 간결하게 전달해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평화출판사 / B5 / 170면 / 20,000원

국내 처음의 포토로망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소설과 사진 이미지를 한데 결합시킨 드물게 보는 포토로망집. 작가 이문열의 대표단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사진작가이며 미술 평론가인 정진국씨가 이미지화했는데, 극단 까망이 홍익소극장 무대에 올린 연극공연을 찍은 것.

포토로망은 2차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뒤 전유럽에 널리 보급된 대중예술. 이제는 상당히 진전된 다양한 표현양식과 기법을 갖추고 새로운 예술장르로 각광받고 있다. 미술관이나 화랑 중심의 미술처럼 관객에게 높은 교양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만화와 같은 대중예술에서 다뤄지기 어려운 진지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거나, 영상문화에 익숙해진 현대의 독자·관객에게 읽을거리와 구경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이자 장점으로 꼽힌다.

이 책은 글과 사진이라는 포토로망의 기본적인 결합을 넘어 연극무대를 피사체로 잡았다는 점에서 소설과 사진과 연극이 한데 어우러지는 독특한 포토로망집이 된다. 특히 이문열의 이 작품은 제11회 '이상문학상' 수상작으로 프랑스와 일본에서 번역된 데 이어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도 출간되는 등 국제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작품이어서 더욱 화제를 모은다.

단편분량의 소설을 활자의 급수를 키우고 여백을 충분히 두어 보기좋도록 편집하는 한편 이야기의 전개에 맞추어 사이사이에 모두 90여점의 사진을 배치했다.


작업에 사용된 사진기는 6X9 판형으로 셔터빠르기는 4분의 1초에 맞췄다. 사진작가 정진국씨는 서울대 미대 회화과와 파리 8대학 조형예술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사진사를 강의하고 있다. 이미지 매체 및 이미지 문화에 대한 비평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사진의 역사」(뷰먼트 듀홀) 「대중매체시대의 예술」(존 A. 위커) 「사진의 제국」(앙드레 루이예) 등의 역서가 있다. 한·불 공동제작의 미술대전집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열화당) 한국어판 책임을 맡고 있기도 하다.

민음사 / A5신 / 216면 / 4500원

재고·반품 처리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년간 출판사 재고, 반품서적을 취급해온 저희 삼성자원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덤핑시장에 유통되어 다시 귀사로 반품되는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확실한 용해확인(제지공장, 현장확인, 촬영)
- 취급품목은 각종서적 총류

 삼성자원(주) 전화 : 264-3828, 265-5210
팩스 : 265-5210

세계의 자연과 문화정보 담은 안내서

「벌리츠 여행안내서」 시리즈



휴대하기 간편한 사이즈에 세계여행에 관한 쓸모있는 정보와 조언을 담은 여행안내서다.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작은 책이지만 현지의 생생한 컬러사진과 함께 세밀한 정보들이 실제 여행에 실용적인 포켓북.

이 시리즈는 영국의 벌리츠출판사가 세계 100여개 나라와 도시에 대한 여행안내서로 출판한 것을 한글판으로 펴낸 것. 이미 36개국에서 번역된 세계적인 여행안내서인데 이 가운데 일본·스위스·홍콩·타이·싱가포르·하와이·파리·마드리드·암스테르담·코펜하겐·빈·예루살렘·멕시코시티 등이 1차분으로 발행됐다. 각 도시와 나라를 1권씩으로 구성해 민족과 문화, 국민적 특성을 서술하고 역사도 간략히 살핀 다음, 볼 만한 관광지들을 선별해 소개하는 체계로 꾸며졌다. 가는 방법, 언제 관광하는 것이 좋은가, 그곳에서 꼭 보아

야 할 것들, 예산짜기와 물가 등 현지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실용정보만을 따로 모아 찾기 쉽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그 여행지의 갈 만한 음식점과 요리들, 음식의 특징도 소개해 여행중 별미를 맛볼 수 있는 방법도 전달해준다.

이 안내서의 시리즈는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의 걸작사진을 책마다 50여점 이상 싣고 있어 한눈에 그곳의 사정을 알 수 있게 배려한 것도 특징. 여행자를 위한 세밀한 컬러판 지도와 색인을 실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이 되게 했는데 아주 간단한 몇가지 유용한 표현들을 현지어로 소개해 여행의 불편을 덜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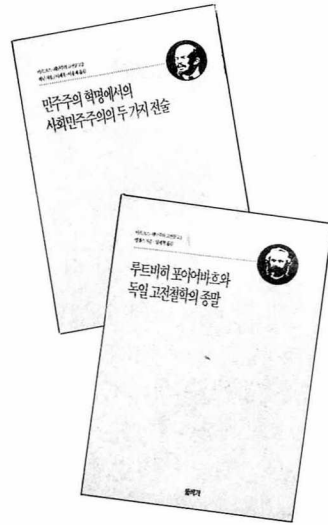
예컨대 프랑스 「파리」편을 보면 대표적인 식당과 호텔안내를 부록으로 싣고, 신화와 전설을 잘 간직하고 있는 파리사람들의 자부심과, 멋쟁이 여성들, 재치와 품위와 매력을 풍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묘사한다. 볼 만한 곳으로 센강을 중심으로 한 거리들과 숲 다리, 박물관, 미술관을 소개하고 골동품 식품점 등의 쇼핑요령도 알려준다. 우리나라에서 파리로 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과 파리의 버스·철도편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집트·라인계곡·런던·스톡홀름·아테네·뉴욕·미국·캐나다·캘리포니아·브라질·호주 등 17개 도시와 국가에 대한 여행안내서가 나올 예정. 깊게 이해하면서 알기 쉽게 짜여져 읽는 즐거움과 함께 그곳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완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웅진출판 / A6 / 126~256면 / 4500~5500원

마르크스·레닌주의 대표저작 모음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외



지난 연대 사회주의 이념의 원천지로 '고전'의 위치를 점했던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저작물들을 모아 새롭게 번역한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문고' 시리즈 중 4권이 출간돼 새삼스런 관심을 모은다.

동구권의 급격한 변화와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로 탈마르크스 경향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무조건 청산하려는 이즈음의 상황에서,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보다 냉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도 이들 고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리즈의 기획의도다.

제1권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엥겔스 지음, 양재혁 옮김)은 엥겔스의 1886년 저작으로 중세 이후 봉건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로 봉사했던 관념론을 비판하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설명체계로 18세

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히 발전한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과학 이론에 기초한 그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제2권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두가지 전술」(레닌 지음, 이채록·이용재 옮김)은 제1차 러시아혁명후 볼셰비끼파를 대표하던 레닌이 멘셰비끼파의 오류를 지적하고 당 전체를 볼셰비끼의 올바른 전술적 강령 위에 통합시키겠다는 의도로 쓴 팸플릿이다.

제3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아병」(레닌 지음, 김남섭 옮김)은 레닌이 1920년 당시 유럽의 노동운동 및 공산주의운동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한 책으로, 운동의 '혁명성'을 유지한다는 구실로 선거나 의회참여를 거부하거나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합법단체에서의 활동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대중으로부터 유리되고자 했던 일단의 좌익운동을 비판하고 있다.

제4권 「국가와 혁명」(레닌 지음, 문성원·안규남 옮김)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및 혁명론의 성과를 종합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가장 중요한 저작 중의 하나로 꼽힌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가론을 살피고, 이 이론들 중 망각됐거나 기회주의적으로 왜곡된 부분들을 상세히 지적하는 한편 러시아혁명 경험이 남긴 주요 결과를 총괄하고 있다.

тол베개 / A5변형 / 각 176면 내외 / 각 3000원

기획·편집·디자인에 제작까지 잘 할 수 있는 편집장

● 좋은 편집장 한 분만 구해 주십시오

출판경기가 최악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지금도 안면있는 거래처에서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정은 잘 보는데 디자인 감각이 좋지 않아서... 기획력은 있는 것 같은데 실무가 약해서... 일은 잘 하는데 인간관계가... 기획·교열·교정·디자인에 심지어 제작까지 할 줄 아는 편집장, 부하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편집장, 그런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 미안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조금씩은 다 할 줄 알지만 전부 다 잘하시는 분도, 한두 가지는 잘 하지만 모든 것에 유능하신 분도 안 계십니다. 편집은 총체적인 일이지만 지금 그런 르네상스적인 편집장이 있겠습니까? 또 설명 그런 분이 있다 해도 쉽게 자리를 옮기겠습니까?

● 나누어서 일합시다

교열이나 교정은 숙달된 교정자가, 디자인은 훈련된 감각을 가진 디자이너가, 기획은 영업자와의 토론을 거쳐서, 제작은 공정을 잘 아는 제작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여름새벽은 편집과 디자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편집자의 기획의도를 제작물로 구현해 내는 일,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잘 할 줄 아는 일입니다.



표지·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단행본·잡지·사보편집대행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62-63 전화/325-4963·4 팩스/325-4965